

## 슬픔에 잠겨있는 인민들에게 사랑의 물고기를 안겨주시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서거하신지 하루가 지난 주체 100(2011)년 12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일군들은 계획된 량의 물고기가 16일 저녁 동해안의 어느 항구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때로 말하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과중한 사업부담으로 분망하실때인지라 일군들은 이에 대하여 알려드리기를 주저하였다.

사실 그 물고기는 평양시민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의하여 마련된 물고기였다. 몇달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도시민들에게 명태와 청어가 공급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해 11월에는 전국의 인민들에게 더 많은 도루메기를 잡아 공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평양시민들에게 깊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이와 함께 새해를 맞게 될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줄 명태와 청어를 마련해주시고 서거하시기 하루전인 12월 16일 저녁 9시 13분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문건에 사랑의 수표를 남기시였다.

물고기가 도착하였다는것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지막 친필이 어린 문건에 대해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심중에는 아버지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더 짙 차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이 물고기는 황금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물고기라고, 하루빨리 이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을 동원하여 전용렬차로 물고기들을 평양에 수송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여 주시였다.

아직도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슬픔속에 잠겨있던 평양시민들은 생신한 물고기들이 공급되게 된다는 사실에 접하자 놀라움을 금할수 없어 하였다.

그들 모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에 목이 메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원수님은 인품에 있어서나 덕망에 있어서 우리 장군님과 꼭 같은신분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애도기간에 펼쳐진 이 전설같은 일화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지게 되었다.